

# 부드러운 전통문화와 파워풀한 대중문화의 융합



## 미리 보는 개폐회식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개폐회식은 세계 젊은이들이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는 대회를 한 달 앞둔 3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김항식(전 국무총리) 조직위원장과 연출진 및 주요 출연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폐회식 제작 발표회를 열었다.

개폐회식의 연출 주제는 'U are shining'이며, 대회 슬로건은 'Light up, tomorrow'다.

국내에 뮤지컬 바람을 일으킨 박명성 감독이 총감독을 맡았다. 개폐회식의 전체 이야기는 1990년대 소설 '걸어서 하늘까지'로 당시 대학생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작가 문순태(74)씨의 새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한국 무용계를 대표하는 박금자씨가 안무 감독을, 패션 디자이너 박항치씨가 공식행사 의상 감독을 맡았다.

다음달 3일 광주유니버시아드 주경기장(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개폐회식에서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한글 등 우수한 문화 자산을 바탕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이야기가 해학적으로 펼쳐진다. 락사운드를 배경으로 수백명의 출연진들이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광주의 고서움을 재해석해 보여

## 주제 'U are shining'

주원·유노윤호·송소희 주연

사이니·EXID 스타 총출동

준다. 한국의 신명나는 민요를 세계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음악으로 변태해 연주하고 마치 DJ 파티에 온듯한 분위기 속에서 세계 170여개국의 선수들이 입장한다.

주제공연은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들로 세상이 빛을 잃어버릴 때 국악소녀 송소희양이 등장해 아름다운 우리 소리로 자신의 안에 담긴 빛을 찾으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서로 손을 잡고 흥겨운 강강술래도 펼쳐진다. 다만 개회식 피날레 행사는 당일 오픈된다.

다음달 14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폐회식은 콘서트 위주로 꾸며진다. 케이팝 가수들의 공연과 한국 전통 빛놀이로 세계 젊은이들에게 큰 즐거움을 줄 전망이다. 개폐회식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들이 대거 출연한다.

영화배우 주원, 아이돌그룹 동방신기 유노윤호, 젊은 국악인 송소희, 팝페라 가수 임형주, 국악인 김덕수·왕기철·박종숙, 성악가 김재형, 가수 김경호 등이 대회 참가자들의 흥을 돋운다. 사이니, 블랙피, 지누션, EXID, 크레용팝, 울랄라세션, 디펍스 등 케이팝 스타들도 함께 한다.

김항식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도전 정신을 가진 세계의 청년들이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해 정성껏 대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박명성 총감독은



광주U대회 개폐회식 의상

3일 오후 서울시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개폐회식 제작발표회에서 연기자들이 공연에 쓰일 의상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와 힘이 넘치는 현대 대중 문화를 절묘하게 융합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박진표기자 lucky@

## 'U대회 성공' 기원 시민 한마당 음악회

국악·무용·대중가요·불꽃쇼... 문화전당 5·18광장 메운 시민들 환호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개최 성공 기원 시민 한마당 음악회'가 3일 오후 6시 4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5·18 민주광장에서 열렸다.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국악, 클래식, 무용, 대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질 때마다 환호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열정, 꿈, 화합'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식전 행사인 치어리더 공연과 타악그룹 '열쑈'의 웅장한 대북 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개막식에서는 광주U대회 공동위원장인 윤장현 광주시장의 인사말과 함께 홍보영상이 상영됐다.

본행사인 축하 공연은 오후 7시부터 시

작됐다. 공연의 서막은 1998년 장단한 퓨전 국악그룹 '도드리'의 흥겨운 국악 공연이 장식했다. 이어 맥도날드 광고방송, TV 예능 '스타킹' 등에 출연한 5인조 아카펠라 그룹 다이아(DIA), 남녀 혼성 관악 퍼포먼스 팀 '브람스통', 광주여대 무용과 박선욱 교수가 이끄는 '박선욱동무무용단'의 공연이 펼쳐졌다.

연기가수들이 공연이 펼쳐질 때는 관객들의 환호성이 터졌다. 조빈, 이혁으로 구성된 '노라조'는 '슈퍼맨', '니 팔자야', '해피송' 등 흥겨운 노래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감쪽한 6인조 걸그룹 '달샤벳'의 공연 역시 많은 박수를 받았다. 지난 2011년 앨범 '슈퍼 두파 디바'로 데뷔한 달샤벳은

'블링블링', '반짝반짝', '나를 잊지 마요' 등을 화려한 안무와 함께 선보였다.

행사의 마지막은 화려한 불꽃 멀티미디어쇼가 장식했다. 이날 음악회 전에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렸다. 시민들은 레드카펫 포토존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공을 기원했다.

'창조의 빛 미래의 빛'을 주제로 7월3일부터 14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유니버시아드 대회에는 170개국에서 사상 최대 인원인 1만 4000여명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광주U대회는 '예향'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문화 행사가 어우러지는 '컬처버시아드(Cultureversiad)'로 꾸러질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피렌체화파에 맞선 '색채의 신' 티치아노



(115) 베니스

5월 초 개막된 '제56회 베니스비엔날레'는 '미술 올림픽'이라는 명성답게 세계 미술인들의 관심이 뜨겁다. 백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베니스비엔날레'는 1895년 이탈리아 국왕 움베르토 1세와 마르게리타 왕비의 은혼식을 기념하여 창설된 것으로 유명하지만 사실, 베니스는 비엔날레가 개최되기 훨씬 이전부터 그림으로 뒤덮인 도시였다. 광주비엔날레가 예향의 토대인 남종화의 고향 광주에서 태동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미술사에서 르네상스 시기의 베니스는 피렌체와 비견되는 뚜렷한 회화적 특징을 지닌 화풍이 형성된 곳이다. 피렌체화파가 조형적 형태주의를 중심으로 한 대생실력을 우월한 요소로 꼽았

다면, 베니스화파는 풍부한 빛과 색채를 중요한 미학적 이념으로 삼았다. "대생을 잘하면 색채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던 피렌체의 마켈란젤로와, 색채로서 감각적인 아름다움을 실현하는데 고심 참담하여 '색채의 신'이라 불렸던 베니스의 티치아노가 대표적이다.

티치아노(1485~1576)의 작품 '성모와 성인들과 페사로 일가'는 베니스의 귀족 페사로가(家)의 주문을 받고 제작한 프라리성당 제단 장식화인데 공간의 구성, 인물의 단계적 배치, 성상화의 간결한 위엄을 서사적 전개로 능숙하게 담아낸 수작으로 꼽힌다. 성 프란체스코와 성모의 왕좌 아래에 계단에 권위의 상징인 열쇠를 앞에 둔 성 베드로가 보이고 페사로는 성모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 티치아노의 작품은 그림의 내용을 살피기도 전에 부드럽고 다채로운 색채들로 우리에게 강렬한 인상을 준다.

99세에 세상을 떠난 티치아노는 긴 생애동안 초상화가로서도 큰 명성을 얻



티치아노 작 '성모와...'

었다. 황제 카를 5세의 초상을 그리는 도중에 그가 떨어트린 붓을 황제가 집어줄 정도로 티치아노에게 경의를 표했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티치아노의 초상화를 한 곳에 모으면 당시 유럽 명사들의 인명사전이 될 만큼 다채로웠으며 후일 람브란트, 반 다이크 등이 티치아노의 초상화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

**밝은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안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수술 방법: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치료, 인공 수정체 삽입으로 백내장과 함께 노안치료, 각막에 초정밀 미세 인레이를 삽입하여 노안치료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부작용: 수술 후 아가 빛반사, 노안시력 교정수술 시 건조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료광고심의필 제 140611-중-59153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중-68156호

**새생명탄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